

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21. 9. 23.(목) 10:00
담당과장	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성장기획팀 김동곤 (02-6050-2515)	담당자	한유빈 사무관 (youbinhan@korea.kr)

혁신성장 빅3(BIG3)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

* BIG3: 미래차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 등 3대 성장동력

- **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**은 9.23.(목) 08:30. 정부서울청사에서 「**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**」를 개최하였음
 - * 참석: 경제부총리(주재), 산업환경중기부 장관, 금융위원장, 과기정통부·자국도부 차관, 특허청장
- 이번 회의에서 ①**혁신성장 BIG3산업 육성성과 및 향후 논의 과제**, ②**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**을 상정하여 BIG3 추진회의 출범(20.12) 후 10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**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**하였음
 - ① **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(GVC) 재구축, 미래산업 선도경쟁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, EU 등 주요국은 자국중심 산업육성정책을 적극 추진중임**
 - * 美 4대품목 공급망 점검개선(21.2), EU 6대 분야 신산업 전략(21.5), 日 반도체 전략(21.6) 등
 - 우리의 경우 일찌감치 **BIG3 산업을 집중 육성**해온 결과 **기술 개발, 투자·수출 급증, 글로벌 선도지위 유지·강화** 등 BIG3 산업의 성장 생태계가 굳건해지는 모습임
 - 그동안 14차례 BIG3추진회의를 개최, **463개 핵심과제**를 확정·시행중이며, 앞으로는 ①**규제혁파와 생태계 조성**, ②**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**, ③**민관협력, 대중소기업 협력** ④**현장소통 강화**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, **BIG3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지원**해 나가기로 하였음
- ② 또한, **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** 관련, 그동안 3차례에 걸쳐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. 3.8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, 금년말 4회차 선정, '22년까지 **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**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**BIG3산업과 혁신기업의 동반성장**을 통한 **생태계 강화**에도 매진해 나가기로 하였음

※ 붙임: 부총리 모두발언

붙임

부총리 모두발언

- **지금부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**를 시작하겠습니다
 - **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**가 지난 12월 출범한 이후 10여개월이 경과, **관계장관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**해 보고 **향후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**하고자 간담회를 개최
 - 오늘은 ①**혁신성장 BIG3산업 육성성과 및 향후 논의과제**, ②**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** 2개 안건을 논의
- 지난해 말부터 BIG3 추진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총 14차례 걸쳐 시스템반도체·미래차·바이오헬스 관련 **48개 안건, 463개 과제**를 논의하였음
 - 이를 통해 **K-반도체 전략(5.13일)**, **이차전지산업 육성전략(7.8일)**, **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(8.5일)**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BIG3산업별로 **육성 지원, 규제혁파, 생태계 조성, 인프라 구축**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
 - 또한, BIG3산업 지원예산을 '20년 4.4조원에서 '22년 6.3조원으로 **43% 증액**하였으며,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 등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R&D 및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
- 오늘 간담회는 지난 10개월간의 BIG3 산업 및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성과를 점검하고, **향후 지원방향 및 중점과제**를 논의하기 위한 것임
 - BIG3 산업 지원결과,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**수소차 점유율 세계1위,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,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**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음
 - 그러나, BIG3분야 지원과제 463건중 육성지원이 전체의 50.1%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혁파는 전체의 12.5%에 불과하는 등 **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**한 것으로 평가
 - 또한, 현장에서는 인력부족, 송전선 설치, 불합리한 규제 등의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
- 장차관님들께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, 공급망 내재화, NDC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BIG3분야가 조기에 세계1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**지원방향 및 논의과제, 기존과제 보완 및 현장 애로해소** 등과 관련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길 바람

(모두발언 여기까지임)